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에 관한 조사연구*

Research on the Leisure Preferences of Urban Married Women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金 外 淑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 : Oi-Sook Kim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tuation of leisure preferences, the effect of related variables on the leisure preferen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s of urban married women.

The survey of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means of interviews with 606 married women in Seoul. The instruments of the survey were questionnaires including a leisure preferences scale. Data were analysed by means of the statistics of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and Sheffe's multiple range test,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ost preferred leisure type by urban married women is family oriented activities, especially conversations with family and playing with children.

The level of leisure preferences differs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The most distinctive variable on leisure preferences is the sex role of wome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s differs according to leisure activities and types. Especially in the area of religion/ social activities and self-developing activities, preferences on leisure activities has relatively strong relationship with participations on leisure activities.

* 이 연구는 1995년도 한국방송대학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Ⅰ. 서론

오늘날 여가생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대학에 여가 관련학과가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고, 여가에 관한 학술잡지도 관광, 공원관리 등 특정 분야에 관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Journal of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 Leisure Studies 등 여가에 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주로 하는 잡지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단행본도 다수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여가연구가 체육,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으며, 연구주제 또한 여가활동참여의 실태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데 치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가정학에서도 여가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학위논문 또는 학회지에 여가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여가활동참여, 여가활동유형, 여가장애, 여가동기, 여가의사결정 등 다양하다.

인간의 여가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표출된 행동 이외에 이와 관계가 깊은 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여가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써, 여가선호는 여가활동에 대하여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여가활동참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여가선호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여가선호가 여가활동참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활동에 있어서 선호와 참여의 관계는 여가연구의 이론뿐만 아니라 응용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보면 선호와 참여의 관계는 지각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각과 행동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밝히는데 공헌할 수 있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선호와 참여의 관계를 수요예측,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 계획, 여가정책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Chase & Cheek, 1979).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여가선호의 정도와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 여가선호와 여가참여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여가선호

선호(preference)란 특정대상에 대한 태도의 일종으로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이다(Shelby et al., 1983). 따라서 여가선호란 어떤 여가활동참여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개인이 믿는 것으로,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선호'를 줄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선호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여가활동 중 무슨 활동을 좋아하는지(또는 참여하고 싶은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Shinew와 그의 동료들(1995), Floyd와 그의 동료들(1994)이 "여가활동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선정하도록 한 연구나 McAvoy(1979)는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 5가지를 선택하시오"라는 질문으로 활동선호를 측정한 연구는 이 방법을 사용한 예로 들 수 있다.

여가선호를 측정하는 다른 한 방법은 먼저 활동을 제시하고 그 활동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선호는 아니지만 Hirschman(1985)은 미디어 내용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면서 내용의 특성을 미리 제시하고 각 특성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하천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를 측정한 Knopp와 그의 동료들(1979)은 환경적 요인 특성 각각에 대한 선호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활동참여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경우 여가연구가 심화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Chase & Cheek, 1979; McAvoy, 1979; Floyed et al., 1994; Shinew et al., 1995)뿐만 아니라 여가장소의 밀집도 (Shelby, 1983), 여가동료(McGuire, 1985), 미디어의 내용(Hirschman, 1984), 여가활동장

소의 특성(Knopp et al., 1979)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선호가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가선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여가활동을 유형화하기 위한 자료로서 여가선호를 조사한 연구가 보인다. 신문영(1984)은 서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요인분석함으로써 여가활동유형이 분류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여가활동유형이 분류되지 않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여가활동의 분류가 가능했으며, 선호를 기초로 분류된 유형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시청각레저활동, 대중오락활동, 사교적활동, 비사교적활동, 무취미적활동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

한편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성격, 성별, 종족, 사회계층 등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65세 이상의 노인 540명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여가 선호를 조사한 McAvoy(1979)의 연구에서는 주거지역(도시/여가자원이 풍부한 농촌/여가자원이 빈곤한 농촌)에 따라 특정활동에 대한 선호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A형 성격과 과업표시(노동/여가)가 과업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Tang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6)에서는 성격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소비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1세부터 65세의 성인 1,711명에 대한 전화면접 자료를 사용하여 성별(남/여), 종족(흑인/백인), 주관적 사회계층(빈곤·노동계층/중류·중상류계층)을 기준으로 8집단으로 분류된 하위집단의 여가선호를 분석한 Shinew와 그의 동료들(1995)은 빈곤·노동계층의 흑인여성은 백인남성과 백인여성, 중류계층 흑인남성과 구분되었지만, 중류계층 흑인여성, 빈곤계층 흑인남성과는 유사하여 여가선호에 대한 다중계층관점이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보고하였다. 종족과 계층인식이 여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Floyd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중류라고 인식하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유사한 여가선호를 보였고, 자신을 빈곤층 또는 노동계층으로 인식하는 흑인과 백인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선호가 여가행동의 일면임을 고려할 때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힌 김외숙의 선행연구(1991)에 의하면 여가활동 선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은 개인적 가설, 사회화 가설, 상황적 가설이며, 각 가설에서 중시하는 변수 중 일회의 조사연구로서 검증이 가능한 중요변수로는 개인적 가설에서 중시하는 성역할 특성, 상황적 가설에서 중시하는 직업, 연령, 가족생활주기, 교육, 소득이었다.

이 연구도 위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조사대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선정하여 변수별 차이를 검증하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동일한 변수가 여가활동참여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여가연구에서 여가선호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여가선호가 여가참여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고찰해보면, 분석단위가 되는 활동의 성격(개별활동/활동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단일 활동간의 선호-참여관계는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2]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여가선호가 아닌 참여빈도를 요인분석함으로써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 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설명력은 55%로 높게 나타났다(김외숙·이기춘, 1992).

선호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선호가 고려된다. 그러나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행동과 선호 사이에 필수적인 일관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Chase & Cheek, 1979). 즉 활동에 따라 선호와 참여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텍사스의 586가계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17가지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참여와 선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Chase와 Check의 연구(1979)에 의하면 개별 활동과 선호 사이의 관계는 파이 상관계수로 0.63(골프)부터 0.31(하이킹)까지 나타났고, 낚시, 사냥, 골프, 테니스와 같은 활동은 선호와 참여의 일관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활동유형별로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어떤 활동에 대한 선호나 참여는 특별히 그 활동에 대한 선호나 참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에 대한 선호나 참여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Chase와 Check(1979)은 여가활동을 참여도, 선호도에 따라 각각 요인분석한 후 참여에 따른 4개 요인과 선호에 따른 4개 요인으로 분류한 후 각 요인별로 참여와 선호 사이의 관계를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선호와 참여는 적어도 둘 이상의 유사한 집단을 갖는다는 구조를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동일한 활동에 대한 참여로 그대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성격이 유사한 다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련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와의 관계를 개별 활동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활동유형별로도 분석하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여가선호자체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먼저 여가선호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한 후,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고, 끝으로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여가활동참여도

여가활동이란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5문항의 여가활동을 제시하고(〈표 1〉 참조) 각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때 참여빈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주 많이 한다'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까지의 리커트 척도 대신 '거의 매일 한다', '1년에 한두번 한다' 등과 같이 활동별로 구체적인 참여빈도를 측정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 여가선호도

여가선호란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여가활동선호를 줄인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15문항의 여가활동을 제시하고 각 활동에 대한 선호

2) 여가 연구에 있어서 수요는 최소한 다섯가지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신고전주의 정의로서 다양한 가격에서 소비 질·양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수요는 실제의 참여가 아니고 어떠한 경험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Smith, 1990:97-98).

의 정도를 '나와는 상관 없다'(1점)에서 '매우 하고 싶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성역할 특성

성역할 특성이란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양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어느 한 성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적인 혹은 여성적인 특성 중에서 어느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희(1988)가 제작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을 나타내는 17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를 1점('정말 그렇다')에서 5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답한 점수를 기준으로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참여 및 여가장애를 연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로서[3],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50대의 기혼여성 606명을 58개지역에서 표집하여 면접조사한 것이다.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여가선호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관련변수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세페의 다중범위검증을,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여가선호의 전반적 경향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선호도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활동유형 및 개별 활동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선호도는 1~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표 1〉 여가선호의 전반적 경향

(N=606)

여가활동 유형/문항	평균	표준편차
가정지향활동	4.02	.51
· 가족과 대화 · 자녀와 놀기	4.23	.71
· 음식만들기 · 집안가꾸기 등	4.14	.79
· 야외나들이 · 여행	3.86	.82
· 시내나들이 · 가족과의 외식	3.84	.74
자기개발활동	3.74	.65
· 독서 · 음악감상	3.91	.85
· 운동	3.71	1.03
· 문화활동	3.70	.98
· 취미강습 · 교양강좌참석	3.70	.96
· 취미활동 · 자학자습	3.69	.94
사교활동	3.58	.64
· 친구 · 친지 · 이웃 등 만나기	3.75	.73
· 모임참석	3.42	.79
종교 · 사회참여활동	3.45	.89
· 종교활동	3.60	1.17
· 사회봉사 · 사회단체참여	3.33	1.01
소일활동	3.39	.61
· 텔레비전 · 라디오	3.40	.70
· 휴식 · 낮잠	3.38	.87

여가활동유형은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요인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라(김외숙 · 이기춘, 1992)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사교활동, 종교 · 사회참여활동, 소일활동의 다섯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도시기혼여성은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활

3)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외숙(1991), 또는 김외숙 · 이기춘(1992) 참조.

동유형별로 볼 때 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가정지향활동이고(4.0), 그 다음으로 자기개발활동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3.7).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유형은 소일활동이다(3.4).

한편 개별적인 활동문항별로 살펴보면, 도시기혼여성은 여가시간에 '가족과 대화하거나 자녀와 놀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활동은 '음식만들기 · 집안가꾸기 등'으로 이상의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4.0이상을 나타낸다. 반대로 가장 선호도가 낮은 활동은 '사회봉사 · 사회단체참여'로서 선호도 3.3이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도시기혼여성은 여가시간이 날 경우 주로 가족중심으로 보내거나 자기개발활동을 하기 원하며, 사회봉사 · 사회단체참여나 소일활동은 크게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지향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연구대상이 기혼여성인 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한편(이는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점에서도 확인된다) 사회봉사 · 사회단체참여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기혼여성의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 서구사회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했을 때 이들의 사회봉사활동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의 하나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에도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극히 낮은데(김외숙, 1991: 72), 선호도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사회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없이는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점의 문제점은 중년기 주부의 정체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주부의 사회적 활동과 깊은 연관을 가진 점에서도(장상희, 1988; 김외숙 외, 1996) 중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의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가계총소득과 성역할특성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가활동유형별로 일원분산분석 및 세폐의 다중범위검증을 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관련변수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선호

(N=542~603)

변수	집단	가정지향활동 (1~20)	자기개발활동 (1~25)	사교활동 (1~10)	종교 · 사회참여활동 (1~10)	소일활동 (1~10)
취업여부	취업	16.02	18.61	7.18	6.93	6.73
	비취업	16.23	18.89	7.14	6.95	6.85
	t값	-1.11	-1.01	0.40	-0.17	-1.14
막내자녀연령	5세이하	16.55 a	19.52	7.19	6.74	6.77
	6~11세	16.02 ab	18.73	7.15	7.09	6.61
	12~17세	16.76 b	18.29	7.09	7.22	6.86
	18세이상	16.56 b	17.37	7.18	6.93	6.95
	F값	6.24***	9.55***	0.16	2.00	1.77
연령	20대	16.88 a	19.89 a	7.48 a	6.68	7.07 a
	30대	16.14 b	18.80 b	7.07 b	6.99	6.57 b
	40대이상	15.64 c	17.94 c	7.13 ab	7.00	6.88 a
	F값	14.51***	13.99***	4.37*	1.44	8.12***
교육수준	중졸이하	16.12	16.85 a	7.48 a	6.88	7.04 a
	고졸	16.09	18.76 b	7.16 ab	6.94	6.79 ab
	대졸이상	16.09	19.37 b	7.06 b	6.93	6.65 b
	F값	0.01	21.54***	3.74*	0.04	3.51*
가계총소득	79만원이하	16.09	18.69	7.47	7.01	6.99
	80~129만원	16.08	18.52	7.12	6.86	6.62
	130~199만원	16.36	19.00	7.23	7.04	6.84
	200만원이상	15.77	18.63	6.92	6.85	6.76
	F값	2.07	0.69	3.77*	0.44	2.37
성역할특성	양성적	16.69 a	19.68 a	7.43 a	7.46 a	6.82
	남성적	16.10 a	19.01 ab	7.08 ab	6.78 b	6.78
	여성적	16.32 a	18.06 b	7.14 ab	6.87 b	6.77
	미분화	15.12 b	17.93 b	6.97 b	6.51 b	6.67
	F값	17.25***	10.39***	3.85**	8.56***	0.41

* p<.05 ** p<.01 ***p<.001

이 표에서 우선 알 수 있는 점은 기혼여성의 여가선호는 취업여부에 따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도가 이 연구에서 분석한 관련변수들을 모두 검토하였을 때, 취업여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김외숙, 1996: 83)와 비교하면 도시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라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선호는

다르지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의 차이로 실제의 참여 행동은 크게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 자신의 연령은 종교·사회참여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유형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막내자녀연령은 가정지향활동과 자기개발활동에 대한 선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외의 활동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기개발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있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집단이 중졸 이하의 집단보다 자기개발활동에 대하여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중졸 이하의 주부집단은 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사교활동과 소일활동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

가계총소득은 도시기혼여성의 사교활동에 대한 선호에만 $p<.05$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성역할특성 집단별 차이를 보면 소일활동을 제외한 네 가지 유형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에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양성적 집단이 소일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하여 강한 선호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 미분화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선호와 실제의 참여가 각 변수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3〉이다. 이 표에서 관련변수들이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취업여부가 여가선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참여에는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 외에 가계총소득도 여가선호에 있어서는 단지 사교활동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지만,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는 종교·사회참여활동 외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3.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의 관계

여가활동유형 및 활동문항별로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선호도와 실제 참여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활동유형별로 볼 때 선호도와 참여도 사이의 관계는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19에서 .55까지 다양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유형에 따라서 선호와 참여 사이의 관계가 다름을 나타낸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종교·사회참여활동이고($r=.55$), 다음으로 자기개발활동이 높은 관계를 보인다($r=.37$). 사교활동과 소일활동이 서로 같은 수준으로 선호와 참여의 관계가 크게 높지 않으며($r=.24$), 가정지향활동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다($r=.19$). 따라서 종교·사회참여활동의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참여가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가정지향활동의 경우 활동참여는 개인의 선호 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여가장애의 개념이다. 여가장애란 여가활동참여를 제한하는 힘으로서 개인에게 지각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의미하는데, 여가장애지각과 여가

〈표 3〉 관련변수에 따른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의 차이 비교

변수	취업여부		연 령		막내자녀연령		교 육		가계총소득		성역할특성	
활동	선호	참여+)	선호	참여	선호	참여	선호	참여	선호	참여	선호	참여
가정지향	.	***	***	***	***	***	.	***	.	***	***	*
자기개발	.	***	***	.	***	*	***	***	.	***	***	***
사 교	.	***	*	***	.	***	*	*	*	***	**	.
종교·사회	.	*	.	***	.	***	.	.	.	.	***	.
소 일	.	***	***	.	.	.	*	.	.	**	.	***

· N.S. *p < .05 **p < .01 ***p < .001

+) 여가활동참여에 관한 자료: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3.

〈표 4〉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의 상관관계

(N=606)

여가활동 유형/문항	상관관계*
가정지향활동	.19
· 가족과 대화 · 자녀와 놀기	.17
· 음식만들기 · 집안가꾸기 등	.21
· 시내나들이 · 가족과의 외식	.24
· 야외나들이 · 여행	.14
자기개발활동	.43
· 독서 · 음악감상	.41
· 운동	.36
· 문화활동	.35
· 취미강습 · 교양강좌참석	.18
· 취미활동 · 자학자습	.25
사교활동	.24
· 친구 · 친지 · 이웃 등 만나기	.14
· 모임참석	.31
종교 · 사회참여활동	.55
· 종교활동	.61
· 사회봉사 · 사회단체참여	.34
소일활동	.24
· 텔레비젼 · 라디오	.32
· 휴식 · 낮잠	.17

* 상관관계의 유의도는 모두 p<.001 수준임

활동참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교 ·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장애지각과는 아주 낮은 관계를 보이고(r=-0.10), 가정지향활동의 경우 장애지각과 참여도 사이의 관계가 가장 높았다(r=-0.26)(김외숙, 1991).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지각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종교 ·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참여에는 여가장애보다는 개인의 선호가 더 영향을 주고, 가정지향활동의 경우 개인의 선호보다는 다른 장애요소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소일활동의 경우 선호도는 가장 낮지만 참여도는 가장 높으며, 선호도와 참여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선행연구에 의하면 참여도와 장애지각과의 관계는 가장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r=-0.08) 이 활동에 대한 낮은 선호와는 관계없이 이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자기개발활동의 경우 현재의 참여도는 가장 높지 않지만 이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높고, 선호와 참여간의 관계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앞으로 참여가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장애지각과 참여간의 부적(負的) 상관이 낮지 않기 때문에(김외숙, 1991;127) 장애가 제거되어야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교활동도 선호와 참여의 관계가 자기개발활동의 경우와 동일한데, 장애와 참여 사이의 관계도 유사하였다(김외숙, 199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50대의 기혼여성 606명을 58개 지역으로부터 표집하여 면접조사한 자료를 SPSS 프로그램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 세폐의 다중범위검증,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 실태를 밝히고,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였으며, 여가선호와 여가활동참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도시기혼여성은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중간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특히 가정지향활동에 대하여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관련변수별로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소일활동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대한 여가선호가 성역할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반면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취업여부가 여가선호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와의 관계는 여가활동유형 및 개별 여가활동에 따라 다르며, 선호와 참여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활동은 종교 · 사회참여활동이고 가장 낮은 활동은 가정지향활동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우선 여가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

해서는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선호뿐만 아니라 여가장애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이들간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도시기혼여성의 경우 자기개발활동과 가정지향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와 함께 소일활동에 대한 참여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종교·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여성은 남성과 다른 여가행동을 보이며,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도 또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가교육 및 여가행정에서 기혼여성의 특성을 참조할 필요성이 크다.

기혼여성의 여가생활에 있어서 가족 또는 가사노동의 의미를 밝히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영희(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 개발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153-180.

2)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6). 가족자원관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4) 김외숙·이기춘(199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61-74.

5) 김외숙·임혜경·임정빈·이기영·이연숙·조재순·고성혜·송혜림(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II: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29-142.

6) 신문영(1984). 레저선택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싸이코그래픽 접근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장상희(1988). 도시 중년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 66-89.

8) Andreasen, A. & Belk, R.W.(1980). Predictors of attendance at the performing ar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112-120.

9) Chase, C.R. & Cheek, Jr. N.H.(1979). Activity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Conclusion from a factor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2), 92-101.

10) Crawford, D.W., Godbey, G. & Crouter A.C. (1986). The stability of leisure prefer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2), 96-115.

11) Floyd, M.F., Shinew, K.J., McGuire, F.A. & Noe, F.P.(1994). Race, class, and leisure activity preferences: Marginality and ethnicity revisite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158-173.

12) Heywood, J.L.(1987). Experience preferences of participants in different types of river recreation group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1), 1-12.

13) Hirschman, E.C.(1985).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content preferences for leisure-time medi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1), 14-28.

14) Knopp, T.B., Ballman, G. & Merriam, Jr. L.C. (1979). Toward a more direct measure of river user prefer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4), 317-326.

15) McAvoy, L.H.(1979). The leisure preferences, problems, and needs of the elderl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1), 40-47.

16) McGuire, F.A.(1985). Leisure co-participant preferences of the elderly: age-homogeneity versus age-heterogeneity. Leisure Sciences 7(1), 115-124.

17) Peterson, G.L. & Stynes, D.J.(1985). The stability of a recreation demand model over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2), 124-132

18) Peterson, G.L. & Stynes, D.J.(1986). Evaluating goodness of fit in nonlinear recreation demand models. Leisure Sciences 8(2), 131-147.

19) Ragheb, M.G.(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 138-149.

20) Ragheb, M.G. & Beard J.G.(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2), 155-167.

21) Richardson S.L. & Crompton, J.L.(1988). Latent demand for vacation travel: A cross-cultural analysis of French- and English speaking residents of Ontario and Quebec. Leisure Sciences 10(1), 17-26.

22) Samuel, N.(ed) (1996). Women, leisur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society: A multinational perspective. Wallingford : CAB International.

23) Schoolmaster, F.A. & Frazier, J.W.(1985). An analysis of angler preferences for fishery management strategies. Leisure Sciences 7(3), 321-342.

24) Schreyer, R. & Beaulieu, J.T.(1986). Attribute preferences for wildland recreation setting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31-247.

25) Shelby, B., Heberlein, T.A., Vaske, J.J., & Alfano, G.(1983). Expectations, preferences, and feeling crowded in recreation activities. Leisure Sciences 6(1), 1-14.

26) Shinew, K.J., Floyd, M.F., McGuire F.A., & Noe, F.P.(1995). Gender, race, and subjective social class and their association with leisure preferences, Leisure Sciences 17(2), 75-89

27) Smith, S.L.J.(1990). Dictionary of concepts in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 New York : Greenwood Press.

28) Tang, T.L.(1986). Effects of type A personality and task labels (work vs. leisure) on task prefer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1), 1-11.

29) Taylor, J.G., Cortner, H.J., Gardener, P.D., Daniel, T.C., Zwolinski, M.J. & Carpenter, E.H.(1986). Recreation and fire management: Public concerns, attitudes, and perceptions. Leisure Sciences 8(2), 167-187.

30) Wahlers, R.G. & Etzel, M.J.(1985). Vacation preference as a manifestation of optimal stimulation and lifestyl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4), 283-295.

31) Wicks, B.E. & Crompton, J.L.(1987).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quity choice preferences, service type and decision making groups in a U.S. c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3), 189-204.

32) Williams, D.R., Ellis, G.D., Nickerson, N.P. & Shafer, C.S.(1988). Contributions of time, format, and subject to variation in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measur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 57-68.

33) Yuan, M.S. & McEwen, D.(1989). Test for campers' experience preference differences among three ROS setting classes. Leisure Sciences 11(3), 177-185.